

# 동물세포 이용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 상위 기업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- **동물세포 이용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, '23년 650만 리터에서 '27년 840만 리터로 확대**
  - 바이오공정 전문지인 BioProcess International이 전문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, 2023년 전 세계적으로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용량은 650만 리터에 달하고, 매년 6.5% 성장세로 2027년에는 840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  
- **기존에는 로슈, 노바티스, 사노피, 바이오젠과 같이 자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업들의 생산 용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, 위탁개발생산기업(CDMO)의 영향으로 비중 변화를 맞고 있음.**
  - 2023년 현재, 스테인레스 스틸 배양기로 동물세포를 이용해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비중을 보면,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비중은 65%에 달하고 있음. 나머지 비중은 CDMO와 자사제품 생산과 위탁생산을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기업이 차지하고 있음.
  - 그러나 2027년이 되면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비중은 2023년 65%에서 2027년 50%로 떨어지고, 하이브리드 기업은 그대로, CDMO 기업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  
- **동물세포 이용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중에서는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론자가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,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일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가 생산용량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어 2027년에는 론자의 생산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**
  -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4개, 론자는 미국, 스페인, 영국, 스위스, 중국 등에 총 7개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음.
  - 우시바이오로직스는 현재 43만 리터의 동물세포 배양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후지필름은 현재는 24만 리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6년까지 덴마크에 16만 리터를 설치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도 2년 내에 16만 리터를 설치할 계획임.
  
- **'23년 현재 바이오의약품 생산 용량에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54% → '27년에는 57%로 증가. 주된 요인은 주요 CDMO 기업들의 생산용량 확장**
  - 현재는 대부분의 생산용량은 자사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, 2027년에는 상위 2위~5위를 CDMO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
  - 2023년 현재 10위권에는 자사제품을 생산하는 로슈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존슨앤 존슨, 암젠, 바이오젠, 노바티스, 사노피 등 자사제품 생산기업 6개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삼성바이오로직스, 론자,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CDMO 기업이 3개, 하이브리드기업인 베링거인겔하임이 포함되어 있음.
  - 2027년에는 현재 상위 10위권에 있는 스위스 노바티스와 프랑스 사노피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대신 일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와 셸트리온이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

<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 상위 10대 기업 현황 및 전망>

순위	2023년	2027년	비고
1	로슈	로슈	자사제품 생산
2	삼성바이오로직스	삼성바이오로직스	위탁 생산
3	베링거잉겔하임	<b>후지필름 다이오신스</b>	위탁 생산
4	론자	우시바이오로직스	위탁 생산
5	존슨앤존슨	론자	위탁 생산
6	우시바이오로직스	베링거잉겔하임	자사제품+위탁 생산
7	암젠	존슨앤존슨	자사제품 생산
8	바이오젠	암젠	자사제품 생산
9	노바티스	<b>셀트리온</b>	자사제품 생산
10	사노피	바이오젠	자사제품 생산
-	후지필름 다이오신스	-	
-	셀트리온	-	

<참고자료> Rise of the recombinants: Global mammalian capacity to reach 8,400kL by 2027, BioProcess International, 2023.10.4